

자연-경계 '조화' 조현동 개인전

내달 12일까지 gallery숨서 자연 실경·물상 소재 작품 전시

gallery숨 전시공간지원기획 '공감-공유' 2021 조현동 개인전이 5월 31일~6월 12일까지 열린다. 조현동 작가는 단국대학교 대학원 조형예술

학 박사로서, 원광대학교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조 작가에 따르면 자연에 존재하는 많은 물상들은 그 나름대로 가치와 존재감을 가지고



gallery숨 전시공간지원기획 '공감-공유' 2021 조현동 개인전이 5월 31일~6월 12일까지 열린다.

있다. 또한 유무한의 존재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른 생물 및 무생물체와 긴밀한 조화를 꾀야 한다. 우리인간들도 자연의 구성원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연에 순응하며 많은 물상들과 조화를 이뤄야한다. 특히 많은 사람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외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해야 한다.

나의 작품에서는 작품의 기법 및 재료에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조화를 이루고 동서양 한쪽에 치우치지않는다는 전통사상을 바탕으로 한 현대적인 조형성과 표현방법으로 작품들을 제작하고자 했다.

이번 전시에서 출품되는 작품들의 주제는 2014년 이후 발표해 온 자연-경계이며, 산과 물 등 우리의 자연 실경과 꽃, 새, 나비, 어패류, 물고기 등 자연의 물상들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다.

색채는 무채색을 위주로 하고 중심이 되는 것은 채색으로 표현해 좀 더 색을 절제하고 전통적이며 현대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장은성기자

김제서 '뮤지컬 빨래' 무대 펼쳐진다

6월 11일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서 진행

김제문화예술회관은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그 두 번째 이야기 '뮤지컬 빨래'를 오는 6월 11일 오후 7시에 선보인다.

'뮤지컬 빨래'는 2008년 초연을 시작으로 꾸준히 사랑받아 온 스테디셀러 뮤지컬로 흥행성과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작년에는 'MBC 놀면 뭐하니?'의 방구석 콘서트에 선택되어 다시 한번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작품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나영'과 몽골 이주노동자 '솔롱고'를 중심으로 서민들의 딱딱한 서울살이와 이를 헤쳐나가는 씩씩하고 매력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네 이야기를 웃음과 눈물로 진솔하고 유쾌하게 그려내는 감동적인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김제문화예술회관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한 거리 두기 좌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좌석 간 아크릴 칸막이 설치, 방역 소독, 발열 체크, 자가 문진표 작성 등 공연장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할 예정이고, 공연장을 출입하는 모든 관람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입



장이 금지된다. 관람권 예매는 6월 1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구매 가능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도, '찾아가는 관광사진 전시회' 개최

QR코드 부착해 촬영 위치 확인 투어매니저 배치 전북관광 홍보

전북도가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과 도내·외 주요 역을 대상으로 도내 숨겨진 여행지와 계절별 가볼 만한 곳 위주의 '찾아가는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쌓인 피로 해소와 여행심리 충족을 위해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시간을 제공하면서 향후 잠재고객의 발길을 끌기 위한 전략이다.

도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개발원을 시작으로, 전북혁신도시 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월별로 순회하며, 사진 전시회(찾아가는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사진마다 QR코드를 부착해 손쉽게 바로 촬영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북도 투어매니저를 배치, 사진 설명과 전북관광 홍보를 겸하고 있어 더욱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사진으로 만나는 전북도 힐링여행'을 주제로 지난 4월 말 익산역에서 실시한 사



진 전시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눈길을 끌어 5월에는 광주 송정역에서 22일부터 31일까지 봄·여름 여행지 사진을 전시하고 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유관기관 및 시·군 공동으로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통해 서울역 및 용산역에

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운영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감성적인 사진 전시가 여행에 대한 대리 만족과 힐링의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 "사진 한 장이 누군가와 인연이 돼 전북을 방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김영모)는 지난 27일 전통문화 활성화와 전통문화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전통문화의 발전을 위한 학술 및 연구 활동의 공동 추진 ▲학생 연계 교육프로그램(인턴십) 공동개발 및 운영 지원 ▲전시 및 전통문화 콘텐츠에 대한 공동개발 및 상호교류 ▲전통문화 상품개발, 유통 및 판매를 위한 상호협력 ▲역사문화자료와 출판물, 학술DB 등 학술정보에 대한 상호교류 등이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문화재청 산하 특수목적 대학으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유산

의 보존, 관리, 활용의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전통문화 전문인력양성 기관이다. 양 기관은 현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상품개발실에서 개발한 전통문화상품 30여점의 기획전 '균형각각, 조선왕실의 문화'를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 지난 12일부터 오는 6월 6일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문화기술연구개발사업으로 직조기술개발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전통문화의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우리 전통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국립태권도박물관, 태권도 라키비움 구축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은 태권도 라키비움 구축 사업을 진행할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한다.

국립태권도박물관에서는 근현대 태권도 관련 정보와 도서, 기록, 유물 등을 수집하고 보관

및 디지털화하여 전시, 체험, 교육, 정보 서비스 등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라키비움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담당 업무는 라키비움 구축과 관련한 데이터 및 자료 관리, 콘텐츠 개발이며 접수기간은 5

월 28일부터 6월 11일 오전 9시까지이다.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친 최종 합격자는 신원조회와 신체검사 등을 거쳐 7월 1일 임용 후 내년 5월 31일까지 태권도진흥재단 국립태권도 박물관에서 근무한다.

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태권도진흥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